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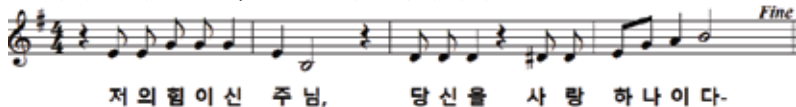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마르 12,29-31)

〈착한 사마리아인〉, 야코보 바사노, 1562-1563,
The National Gallery, London

[제1독서]..... 신명 6,2-6

[화답송] 시편 18(17),2-3ㄱ,3ㄴㄷ-4,47과 51
(◎ 2)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시옵니다. ◎
-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채시옵니다. 찬양하올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에게서 구원되었나이다. ◎
- 주님은 살아 계시다! 나의 반석 찬미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하느님 드높으시다. 주님은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 베푸시고,
당신의 메시아에게 자애를 베푸신다. ◎

[제2독서]..... 히브 7,23-28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복음] 마르 12,28ㄱㄷ-34

- [성가 안내]
- 입당성가: [515] 주여 자비를 베푸시어
 - 봉헌성가: [12] 주님을 기리나이다
 - 성체성가: [156] 한 말씀만 하소서
[180] 주님의 작은 그릇
 - 파견성가: [227]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그때에 ²⁸ 율법 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²⁹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³⁰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³¹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³² 그러자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³³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 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

³⁴ 예수님께서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11월 위령성월

교회는 해마다 11월 2일에 기념하는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과
연관하여 11월 한 달을 ‘위령 성월’로 지내고 있다.

위령 성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이다.
따라서 신자들은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지들의 영혼은 물론 죽은 모든 이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한다. 교회는 이 시기에 특히 연옥에서 단련받는 영혼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다.

위령 성월은 998년 무렵 베네딕토회 소속의 프랑스 클뤼니 수도원에서 11월 2
일을 위령의 날로 정하여 연옥 영혼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한 데서 비롯되어 전 세계
교회로 확산되었다.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인의 통공’(通功)이라는 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된,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의 주인이시며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느님 앞에서 시간은
무의미하다. 곧 세상을 떠난 이들도 이 공동체의 일원이며, 살아 있는 이들도 동일한
구성원이다. 이렇게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머리아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는 유대감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한다.
또한 천국의 성인들도 이 세상의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께 간구한다.

위령 성월인 11월은 전례력으로도 연중 마지막 시기에 속하므로 미사
독서에서는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듣게 된다. 위령 성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편,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조용히 묵상해 볼 수
있는 은총의 시기이다. 가톨릭교회는 11월 2일 위령의 날을 전후한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전대사(全大赦, indulgentia plenaria)의 은총을 부여한다.

묵상

우리는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마치 우리가 마시는 공기처럼,
날마다 받는 햇살처럼 하느님께서서는 나보다 더욱 내
곁에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너무
가까이 계시어서 그분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첫째 계명, 곧
“이스라엘아, 들어라!”로 시작하는 신명기의 위대한
계명을 상기시키십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 존재의 시작과 마침이
하느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
고 가르치십니다. 때로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지만, 마음이 흔들릴 때 언제나 하느님께 도움을
청해야 하고, 목숨 걸고 잃지 않으려는 내 재산과
명예, 건강만큼이나 하느님께 기도하는 시간과
봉헌의 땀을 바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올바른
믿음을 간직하려면 정신을 헛된 것에 쓰지 않고
성경과 교리 공부도 해야 하고, 삶에 지쳐서
쓰러지더라도 힘을 내서 일어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런 하느님 사랑의 첫째 계명은 이웃 사랑을
통하여 완성됩니다. 사랑은 마음이나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내가
교리를 잘 몰라서도 아니고, 성경 지식이 짧아서도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이웃들, 특히 교회 생활에서
만나는 사제와 수도자, 신자들은 물론, 가족과 직장
동료, 일상에서 부딪히는 이웃들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면 신앙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길은,
피하고 싶은 내 이웃을 용서하고 이해하며, 기다려
주고 돌아봐 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고 있습니까?

(류한영 베드로 신부)

복음과 성화

“자비를 베푸 사람이 이웃입니다”

야코포 바사노(Jacopo Bassano, 1510-1592)는 후기 르네상스 시대의 베네치아파 화가입니다. 그는 화가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의 네 아들도 모두 화가였습니다. 그가 그린 <착한 사마리아인>은 루카복음서 10장 25-37절이 그 배경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루카 10,25)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루카 10,27) 그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루카 10,29)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비를 베푸 사람이다.” (루카 10,37) 그래서 이 성화는 누가 참 이웃인지를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 성화에는 네 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그중 두 사람은 전면에 크게 묘사되어 있고, 나머지 두 사람은 후면에 작게 뒷모습만 그려져 있습니다. 크게 그려진 두 사람이 바로 중심인물입니다. 한 사람은 강도를 만난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착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은 알몸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의 머리와 발에는 피가 흐릅니다. 그는 머리에 천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빛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처 입은 사람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임을 암시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처럼 알몸에 수건만 걸치고 있고, 머리에 감은 천의 모양도 가시관 같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야코포 바사노 작

강도를 당한 사람을 부축하는 사람이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다인들은 서로 적대관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강도를 만난 유다인을 도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을 착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의 옷 색깔은 사랑을 상징하는 붉은색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는 제자처럼 강도를 당한 사람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상처 입은 사람을 여관에 모실 작정입니다. 그런데 왜 그의 허리에는 단검이 있을까요? 그것은 원수관계였던 유다인을 칼이 아닌 사랑으로 대접하는 그의 행동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로써 착한 사마리아인은 참 이웃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동족인 후면의 두 사람은 그를 보고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립니다. 그 두 사람은 가장 거룩해야 할 사제와 레위인입니다. 그들은 두루마리 성경을 품에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는 성경만을 품에 간직하고 있는 그들의 행동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제와 레위인은 이슬처럼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옷 색깔 역시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색입니다. ...

우리도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간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누가 이웃일까요? 자비를 베푸 사람이 이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새로운 교회의 주인입니다.

(손용환 신부의 복음 생각, 가톨릭신문)

복음 묵상

이렇게 많이 주시면

남는 건 있으세요?



오직 사랑만이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세상 그 어느 것도 나누면 나눌수록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아름다워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음악의 밤

행복 나눔 콘서트



본당 승격 22주년 기념 음악회 “행복 나눔 콘서트”가 지난 27일(토) 8시 30분 본당에서 열렸다.

‘마니 안젤리 핸드벨’의 “You Raise Me Up”을 시작으로 ‘Vox Caeli 10시 미사 성가대’, CYO Choir & Orchestra, ‘라우다메 8시 미사 성가대’, ‘쉐마 청년 성가대’, ‘하랑소리’, ‘좋은 친구들’ 그리고 ‘소사에서’ 등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곡을 발표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백인현 주임신부는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음악이며, 이제 우리는 그 선물 상자를 열려는 마음으로 열어보자”며 “하느님께 찬양하는 시간, 기쁨과 행복, 감동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아울러 출연진과 음악회 준비를 위해 애쓴 모든 봉사자들과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준호 요셉 형제의 사회로 진행된 음악회는 세 시간 동안 행복과 감동을 선사했으며, 마지막 순서로 참가한 전 연주자들과 교우들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사랑으로”를 한마음으로 합창했다.



성경 퀴즈대회

-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이 담긴 네 복음서를 중심으로

본당 승격 22주년을 기념하며 기획된 성경 퀴즈대회가 지난 28일(일) 오후 1시부터 친교실에서 열렸다. 대회 참가자들과 신자 등 약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구역 대항과 2부 개인전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성경 지식을 마음껏 발휘했다.

올 해의 성경 퀴즈 문제를 담당한 방명준 보좌신부는 “누가 더 문제와 답을 잘 외워서 잘 맞추느냐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알고, 그 앎을 통해 그분을 조금 더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그 분을 조금 더 따르기를 바란다”며 대회의 목적과 의미를 짚어주었다. 또 “이번 퀴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이 집중되어 있는 네 개의 복음서에서만 준비한 것으로, 여러분 모두 마태오 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차근차근 읽으며 사랑이신 그 분 안에 머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답이 수록되지 않은 문제의 정답을 알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1부 구역별 대회에서 구역원들은 각자 아는 성경 지식을 나누며 화합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비엔나 구역이 3년째 우승의 기쁨을 안았다.

방명준 신부의 진행으로 이어진 개인전에서는 네 명이 남은 상황에서 신수연 마리아 자매만이 정답을 맞춰 퀴즈왕이 되었다. 신수연 자매는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을 보여달라고 했느냐”(마태16장)는 주관식 질문에 “표징”이라고 정확하게 답해 우승자가 되었다.

성경 퀴즈 대회를 진행한 서경원 마르티노(구역부 회장) 형제는 “문제를 출제해 주신 방 신부님과 퀴즈대회 참여를 독려하고 준비를 위해 애쓰신 각 소공동체 봉사자 그리고 구역부 임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구역과 참가자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축하합니다!

구역 대항

- 우승 : 비엔나 구역(3년 연속)
- 준우승 : 웨어팩스 3구역
- 3등 : 라우든 구역

개인전

- 퀴즈왕 : 신수연 마리아
- 2등 : 유보나 보나
- 3등 : 김재중 요한
- 4등 : 이동명 안젤로
- 5등 : 주광국 그레고리오

31st Sunday in Ordinary Time November 4, 2018

Gospel MK 12:28B-34 (See the page 2)

In today's Gospel reading, one of the scribes asks Jesus what **the greatest commandment** is.
What does Jesus say? **Use every second letter** to fill in the blanks to find out!



Y

(www.thekidsbulletin.com)

A Y B O C U D S E H F A
G L H L I L J O K V L
E M T N H O E P L Q
O R R S D T Y U O V
U W R X G Y O Z D A
W B I C T D H E A F L
G L H Y I O J U K R L
H M E N A O R P T

National VOCATION AWARENESS WEEK

Nov. 4-10, 2018

What is National Vocation Awareness Week (NVAW)

National Vocation Awareness Week(NVAW) is an annual week-long celebration of the Catholic Church in the United States dedicated to promote vocations to the priesthood, diaconate and consecrated life through prayer and education, and to renew our prayers and support for those who are considering one of these particular vocations.

NVAW began in 1976 when the U. S. bishops designated the 28th Sunday of the year for NVAW. In 1997, this celebration was moved to coincide with the Feast of the Baptism of the Lord, which falls on January 13 in 2013. Beginning in 2014, NVAW was moved to the first full week of November.

(www.usccb.org)

What I can do

- Take time to pray for vocations to the priesthood and consecrated life.
- Reflect on our own vocation and strengthen our personal relationship with Christ.
- Educate our young people about the importance of silent prayer and taking the time to truly listen to God's voice in our hearts.

What SPC will do

- Watch the video clip about the Life of Diocesan Seminarians and Sisters
- Do the Vocation-themed activities using Vocation Worksheets for CCD students



Diocese of Arlington VOCATIONS PRAYER

Heavenly Father, Lord of the harvest,
call forth vocations to the priesthood and consecrated life
from our diocese and our families.

Inspire men to imitate Christ the Eternal High Priest
in sacrificial service to Your Church.

Move the hearts of men and women
to offer themselves wholly to You
in poverty, chastity, and obedience.

Send them as laborers for Your harvest.

Inspire the faithful to support them with prayer and sacrifice.

Raise up holy families who foster openness to Your call.

We ask this through Christ, Our Lord. Amen.

Mary Immaculate, pray for us

St. Thomas More, pray for us

St. Elizabeth Ann Seton, pray for us.

1 구역 임원교육

- 일시 : 11월 4일(일) 오전 11:30(B-1,2)

2 예수회 후원회 모임

- 일시 : 11월 4일(일) 오전 11:30(A-1,2)
- 권오면 사베리오 신부님(예수회)을 모시고 후원회 모임이 있으니 회원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한시자 프란체스카 (703)217-5093

3 성모회 임원회의

- 일시 : 11월 4일(일) 오후 1시(B-1)

4 청소년 사도회의

- 일시 : 11월 4일(일) 오후 1시(B-3,4)

5 성소와 성소 후원회원들을 위한 미사

- 일시 : 11월 9일(금) 오후 7:30
- 미사 후 묵주기도

6 공동체 기도회

- 일시 : 11월 10일(토) 오후 8시
- 매월 둘째 토요일은 공동체 기도회의 날입니다.
- 공동체별로 실시되니 참석하시어 신앙과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7 단체장 회의

- 일시 : 11월 11일(일) 오전 11:30(B-1,2)

8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11월 11일(일) 오후 1시(B-3,4)

9 복사단 모임

- 일시 : 11월 11일(일) 오후 12:40(B-1,2)

10 주일학교 교사회의

- 일시 : 11월 11일(일) 오후 1시(교무실)

11 2018-2019년도 첫 영성체반 신청

- 대상 : 3학년 이상
- 신청 : 11월 18일까지, 매 주일 오전 9:30-오후 1:30
- 신청 장소 : 하상관 로비
- 첫 수업 : 11월 28일(수) 오후 7:40-9시
-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 11월 28일(수) 오후 8시
- 문의 : 윤정 보일 (703)371-3589

12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33일 봉헌 기도

-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준비 기도를 함께 하실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 11월 4일까지
- 기도 : 11월 5일 - 12월 7일(33일간)
- 봉헌식 : 12월 8일(성당)
- 문의 : 김 그라시아 (571)243-5054

13 2018년 성령 기도회 "은혜의 밤"

-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응답하고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 11월 14일(수) 오후 7시-오후 10시
- 강사 : 백운택 아오스딩 신부(동북부 성령 봉사회)
- 문의 : 안진이 제올지아 (703)216-5792

14 제14차 동중부 기초 성령세미나

- 성령 안에서 기쁨의 새 삶을 살아가 하시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 일시 : 11월 23일(금) 오전 9시-오후 9시
11월 24일(토) 오전 9시-오후 7시
- 장소 : 볼티모어 성당 기도 회의실
- 회비 : \$40(호텔숙박 및 식사비 포함), 선착순 40명
- 문의 : 안진이 제올지아 (703)216-5792, 동중부 성령 봉사회 (443)520-4420

15 2019년 매일미사 정기구독 신청 및 봉헌초(미사에 사용), 병초 주문

- 성물부에서 1년분을 신청받습니다.
- 교우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권 데레사 (703)346-6067

16 의료 봉사자를 기다립니다

- 주일 오전 8시미사 의료 봉사를 해주실 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사무실 (703)968-3010

17 11월 6일(화) 친교실 사용 금지

- 11월 6일(화)은 미국 선거 행사로 성당 친교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선거단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요일 레지오 모임, 단체부 모임은 하상관을 사용하십시오.

교향님의 11월 기도 지향

일반: 평화를 위한 봉사

사랑과 대화의 언어가
언제나 갈등의 언어를 이기도록 기도합니다.

2차 헌금(11월 10, 11일)

다음 주일은 Retirement Fund for Religious 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필사 5년 계획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31주간 : 유딧 1-8, 사도 22-23

KACM TV 하이라이트

11월 8일(목) 오후 5:00-6:00
11월 9일(금) 오후 8:00-9:00
11월 11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 특집 : 성정 바오로 성당 창립 32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 음악회의 주요 부분을 녹화중계한다.

NGMS 주차장 ↔ 성당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오전 7:30 - 오후 1:30 (10분 간격으로 운행)

NGMS(옛 IBM) 주차장 주소

12900 Federal Systems Park Dr. Fairfax, VA 22033

- 타이슨스 코너 시니어 아파트 픽업: 오전 9:05
- 알링턴 7번코너 시니어 아파트 픽업: 오전 8:45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8년 10월 28일(연중 제30주일)

주일헌금 \$ 7,655.67
교무금 \$ 12,875.00
교무금(크레딧카드) \$ 3,770.00
특별헌금 \$ 650.00
2차헌금 \$ 0.00
합계 \$ 24,950.67

-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온규희(발바라), 정맹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호(마리아), 박제중(요셉),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다), 오인균(바오로),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안순경(모니카), 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고필순(제마), 이주원(카타리나), 최창일(토마스), 강애자(카타리나), 김정희(요셉), 전길두(베드로), 황수현(바오로), 박숙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송재(가비노), 장미래(아네스)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민(론지노), 이슬(루시아), 임현석(아비도), 이재운(안토니오 파도바), 손범기(멜릭스), 윤백참(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철(엔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고미셀(미카엘), 최용성(프란치스코),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견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경(안드레아), 김성우(바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종연(요세), 박홍모(아나시오), 제임스 리(최현)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11월 4일(일)	연중 제31주일	구역 임원교육(오전 11:30, B-1,2), 성모회 임원회의(오후 1시, B-1), 청소년 사도회의(오후 1시, B-3,4), 마니안젤리 나눔터 사용
5일(월)	연중 제31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6일(화)	연중 제31주간	선거(친교실), 하상 성인학교(오전 9:30), 성령 기도회(오후 8시), 성서 통독반(오후 8시),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하상관)
7일(수)	연중 제31주간	평일미사(오전 11시, 성당), 성서 통독반(오후 7:30, 도서실), 바오로 소공동체 모임(오후 8시)
8일(목)	연중 제31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9일(금)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	하상 성인학교(오전 9:30), 성소와 성소 후원회원들을 위한 미사(오후 7:30, 성당), 바오로 형제회(오후 8시), 재정 위원회(오후 8시), CLC 모임(오후 8시)
10일(토)	성 대 레오 교황 학자 기념일	평일미사(오전 7시, 성당),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공동체 기도회(오후 8시)
11월 11일(일)	연중 제32주일	단체장 회의(오전 11:30, B-1,2), 꼬미시움 월례회의(오후 1시, B-3,4), 주일학교 교사회의(오후 1시, 교무실), 복사단 모임(오후 12:40, B-1,2)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카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알베르도) 703-508-7743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다니엘) 703-266-198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생명보험·은퇴연금 메디케어·롱텀케어 이정태 요셉 703-785-4494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현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베드로) 703-675-8009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로사) 703-772-7275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703-832-7155	이용희 변호사 상법, 교통사고, 상속/유언, 가정법, 재판 Gregory Y. Lee(그레고리오) 703-303-2211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빈센트) 571-331-68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마르코) 센터빌, 체넬리 703-429-4622 러빌 MD 301-231-7588	생명보험·메디케어 은퇴연금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크리스) D.D.S. 703-726-8804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웨딩사진 전문 Soowonlee.com 703-678-9215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안나) 703-855-8575	Oh My Dog 애견 미용 방문 서비스 703-678-5301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레드핀 소독 사업체, 가정집, 해충방제 백상윤(마카엘) 703-881-1155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세미나로 자세한 설명드립니다.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인터넷 예약 가능 www.drjohnseok.com 카카오톡: neurocare 703-581-3719	아리랑 시니어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센터빌 (IHOP 건너편) 703-543-6008	페어팩스 부동산 www.fairfaxrealty.com Nina Park 703-303-6993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김응권 척추신경 교통사고/통증/디스크/재활치료 센터빌 703-815-2300	첼로 레슨 첼로 시작하는 어린이부터 전공생 입시레슨(성인 취미 레슨가능) Kim-Cello.com 703-472-3208	예삐 펫 그루밍 강아지 Spa & 미용 703-815-1166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방명준 (라우렌시오) | 사도회장 허전 (베네딕토)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